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주층의 복도 및 휴게홀 이용행태

이 민 아*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전임강사)

유 옥 손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본 연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휴게홀과 복도의 시간별 이용행태의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요양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네 명의 조사원이 노인과 직원의 주 활동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거주층의 휴게홀과 복도의 이용행태를 관찰 기입하였다.

시설의 거주층 복도 및 휴게홀 공간의 이용인원은 대체적으로 점심식사시간 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식사시간 이후 감소하였고, 저녁식사가 다가오면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복도와 휴게홀 곳곳에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는 시설의 경우 시간대별 이용인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알코브형의 작은 휴게홀을 가지고 있고, 복도에 의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전체적으로 복도 및 휴게홀의 이용인원이 적었다. 이용행태는 진료/치료행동에서부터 이동, 운동/체조, 여가오락, 담화, 그리고 직원들의 사무관리 및 보조지원 행동 등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무위행동이 많았고, 점심식사를 전후하여 이동, 운동/체조, 여가/오락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장소별 이용인원의 시간별 변화에서는 대부분 휴게홀의 이용인원이 많았는데, 복도의 경우 시간에 따른 이용인원의 큰 변화는 없었고, 점심식사 시 휴게홀 쪽 복도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인원이 다소 증가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회랑복도를 둘러싸고 소파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 복도 및 휴게홀 이용인원의 차이가 많지 않았다. 장소별 이용행태의 시간별 변화를 보면, 복도의 경우 전체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무위행동이 다수를 차지했고, 휴게홀과 비교하여 이동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었다. 한편, 휴게홀의 이용행태는 시간별로 이용인원의 차이가 뚜렷이 보였는데, 이는 각 시설이 모두 커다란 휴게홀에 좌식 테이블을 배치하고, 벽과 창쪽으로 소파 및 TV 등을 갖추어 공간의 용도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무위행동이 대부분인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소파와 테이블을 벽이나 복도전체에 둘러싸도록 만드는 것 보다는 군데군데 다양한 소파(1인용, 2인용, 3인용 등)와 테이블을 다른 색채로 배치한다거나 계획된 프로그램 외에 수시로 게임이나 운동, 오락, 취미/교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설비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수시여가나 오락 활동이 직원의 통제 하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원활한 직원배치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요구된다.